



종이팩 재활용 동향

Trend of Paper Carton Recycling

최인철 / (사)한국종이팩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사무국장

1. 종이팩 사용현황 및 특성

종이팩은 우유 및 두유, 주류, 기타 음료의 포장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종이팩은 인체에 전연 무해한 천연펄프가 주원료로 미국·독일·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3개국 등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종류로는 주로 우유 포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탑형의 카톤(살균)팩과 두유, 주스, 음료 포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리크형의 테크라(멸균) 등 2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폐종이팩은 주로 화장지(두루마기 및 티슈 등)로 재활용하는 바 1kg(200ml 100개, 또는 1,000ml 36개)으로 두루마기 화장지 3개(50m)를 만들 수 있다.

2. 연도별 종이팩 발생 및 재활용 현황

지난 1999년에서 2002년까지 종이팩 총 발생량과 재활용량에 대해 [표 1]에 나타냈다.

(표 1) 연도별 종이팩 발생 및 재활용 현황(단위:천톤,()백만개)

구분	1999	2000	2001	2002
종이팩 총발생량 (A)	65.9 (4,806)	66.4 (4,861)	69.3 (4,974)	70.9 (5,087)
재활용량 (B)	6.3	6.7	11.7	8.7
재활용율 % (B/A)	9.5	10.1	16.9	12.3

3. 재활용 활성화 방안

[표 1]과 같이 발생(생산)량에 비해서 재활용량(율)이 아주 낮은 바 이는 총 발생량 자체가 낮은 탓도 있지만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므로 우리 국민 모두 철저하게 일반 종이류(신문, 잡지, 박스 등)와 분리하여 배출하고, 수집하는 사람도 분리수집 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부터 EPR 제도가 실시되고 정부 당국이나 종이팩 재활용 관련 단체 등에서 분리배출, 수거할 것을 홍보함에 따라 올해는 발생량 대비

24%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 바, 매년 늘려 적어도 50%는 재활용하여야 자원재활용 품목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날 것이다.

종이팩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는 지난해 분리수거함(200개)을 제작하여 서울시내 2개 구청 관할 43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분리배출 마대(110천개)를 제작 배포, 분리배출 시범 사업 실시(강동구청 관할 아파트 단지), Cable, TV광고 실시(추진 중), 홈페이지 홍보, 관계단체 및 서울시 25개 구청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등 종이팩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관계규정에 대한 일부 보완(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바, 재활용 인정에 있어서 조합(또는 의무생산자)이 재활용자(화장지 제조업체 : 70~80% 수입, 20~30% 국내산 사용)와 직접 재활용 계약을 체결하고 폐종이팩을 공급해야만 재활용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본 조합은 국내 발생 폐종이팩량이 많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량을 공급하기 어려워 수집·운반자와 계약을 하고 이들이 시중 또는 학교나 군급식 등으로 발생되는 폐종이팩을 수집하여 재활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재활용으로 간주하여 재활용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2003년도 종이팩 재활용량 (단위 : M/T)

총발생량 (A)	재활용 의무량(B)	조합재활용		대비(%)	
		의무량(C)	1~8재활용실적	B/A	C/B
65,746	15,500	10,900	7,673	23.4	70.3

또한 관계 당국에서는 관계 규정 문구에만 얹매여 이를 부정하고 있으니 유연성있게 적용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으로 인정하여 주었으면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4. 종이팩 재활용 전망 및 조합계획

종이팩에 대한 재활용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여 3~4년 내에 50%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는 일반국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분리배출 등)와 지자체의 지도감독 철저, 수집자의 철저한 분리수집, 재활용자(화장지 제조업체)의 국내 발생 폐종이팩의 사용확대, 본 조합의 광고·홍보 확대 실시 등으로 많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종이팩을 생산(발생)하면서도 본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활용 의무량 달성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업체가 있는 바, 이로 인한 부작용(수집경쟁 등)도 없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모두가 조합에 가입하여 함께 재활용 활성화에 매진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금년도 재활용 의무량은 [표 2]와 같으며, 2003년 주어진 목표량 달성을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ko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